



# 안철수연구소

## 열정과 이성이 공존하는 '영혼이 있는' 기업가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대표

“기업의 목표는 꼭 이윤극대화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이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결국 단명하고 말 것입니다.”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대표(42)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 몸이 백 개라도 모자랄 처지이니 그를 만나려면 '간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사람 만나는 일을 꺼린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루 24시간을 밀도 높게 보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를 만나러 간 날도 열 대여섯 건의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고 한다.

### 위기의 시대에 빛난 '기본'의 경영철학

안 대표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공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지도 벌써 16년이 지났다. 출발 때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그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관심은 유별났다. 벤처열풍이 역풍을 맞으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에게 향했다. 그의 남다른 면모 즉, 초지일관 '기본'을 강조해온 그의 경영철학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났던 것이다.

“저는 주변 산업이나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객과 시장을 봐요. 거기에 모든 기업의 처음과 끝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이겠죠?”

세상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그것을 현실 속에서 초지일관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에게 '대표 벤처기업인' '벤처정신의 산 증인' '21세기를 이끌 뉴 리더' 따위의 수사가 늘 따라붙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95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세울 무렵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는 경영자보다 학자형 인물이었다. 20대 의학 박사였다 20대 의대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생리학 분야의 신진 학자로 촉망받고 있던 터였다. 창업멤버였던 김현숙 이사만 해도 그를 '결국 의대로 돌아갈 사람'으로 보았을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을 영입해서 의대 재학시절부터 매달려온 백신 개발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가 의대 재학시절부터 의대 교수로 재직하는 7년 동안 새벽마다 꼬박 서너 시간을 프로그래밍에 매달리는 '이중생활'을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회사를 창업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당장에 맡겨버렸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굴지의 벤처기업은 그 운명을 영 달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벤처기업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그는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렸다. 유학길에 오른 것이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테크노 MBA과정이었다. 의학의 길을 접어야 하는

가로 장고를 거듭했지만, 그가 기업인의 길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셈이었다. 그에게 기업경영은 의학만큼 도전이자 모험이었던 것이다.

## ‘영혼이 있는 기업’을 위하여

안 대표가 유학길에서 돌아왔을 때, 경영자로서 그의 변신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시스템을 신봉하고 리스트 매니지먼트를 강조하는 경영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속에 인간이 간혀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를 발군의 경영자로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다. 안철수연구소를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고 상찬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기업의 목표는 꼭 이윤극대화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이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결국 단명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안철수연구소는 국내 벤처기업으로서 드물게 이직률이 영에 가깝다. 30대 초반의 이사가 흔한 벤처기업에서 승진이 느리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뜻밖이다. 게다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벤처기업'으로서 첫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은 '안철수식 경영'이 아니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안철수식 경영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시대변화에 유연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기본과 원칙은 고집과 보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원칙과 변화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그의 경영을 넓고 깊게 한다. 변화와 원칙의 조화로운 공존, 안철수연구소는 이것만으로도 벤처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다. **KOVN**

## ● 내가 본 CEO ●

“언론에 비친 모습처럼, 첫인상이 참 솔직해 보였어요. 안철수연구소에 입사해 일하다 보니 첫인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더군요. 이전에는 맞볼 수 없던 경영자의 인간적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GMB 영업팀 이정미씨는 안철수 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한다. 권위적인 면보다는 진솔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반했다. “회사에 오래 있게 되면 나태해지고, 자기개발엔 소홀해지기도 하잖아요. 사장님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라고 이씨는 덧붙였다.

염승엽 제휴사업팀장의 평가도 이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도 처음엔 옆집 형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굴도 잘 빨개지시고, 워낙 쑥스럽을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 게 편안함을 주나 봐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 계층에 사장님께 사인을 받으려는 직원들이 꼭 있어요.”

염 팀장은 안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좋아하지만, 굉장히 냉철한 면도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대표의 품성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안 대표에게는 인간적 면모와 경영자적 자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염 팀장의 총평이다.



▲ 이정미 씨



▲ 염승엽 씨